

성평등교육이해 II

이정주

(크리에이티브다양성센터)

강사 소개

이정주

- 소속 : 크리에이티브다양성센터
- 강의분야 :
젠더/문화 이론, 페미니즘, 성인지 감수성, 젠더폭력예방
- 약력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팀장
 - 여성신문사 기자
 - 또하나의문화 사무차장

페미니즘이란?

- 프랑스어 'femina'에서 유래한 말. 19세기에 처음 등장
- feminine+ism : '여성'과 '주의'가 합쳐진 표현
 - ⇒ 여성의 경험을 중심에 둔 이론들과 운동들
- 근대가 '개인'과 '인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을 때, 동시에 싹튼 여성해방사상을 페미니즘이라고 부른다.
- 동시대에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성립했다.
- 페미니즘은 단결된 조직이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현대 사상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성을 품고 있다. 즉, 경합하는 관점들의 집합
- 다양한 페미니즘이 등장한 이유는 핵심적인 성차별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남녀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

조직화된 여권 운동의 등장 배경

- 여성 교육의 확대
- 근대 시민혁명
- 노예제 폐지 운동

시민혁명과 평등사상

-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
-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라파예트)
- 프랑스 공화국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예제 존폐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일었고, 이는 이후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운동으로 이어졌다.
- 반면 여성의 정치 참여 문제는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 1791년 올랭프 드 구즈,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 선언」
- 1792년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여성 권리의 옹호』



- 배경 : 남성에게만 투표권이 있던 1912년 영국
(당시 참정권운동은 영국에서 가장 활발)
- 원작 : 애멀린 팡크허스트의 자서전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 내용 : 세탁공장 노동자 모드 와츠가 심부름 길에 우연히 서프러제트 무리의 폭력 시위를 목격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점차 서프러제트로 변해 가는 과정을 그렸다.
- 서프러제트 : 당시 여성참정권을 위해 투쟁하던 여성 '운동꾼'을 가리키는 조롱투의 말

최초의 집회

- 1848년 7월 미국 뉴욕주 세니카폴스에서 열린 노예제 폐지회의
- 이 자리에서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튼은 미국의 독립 선언문에 근거한 성평등 선언문 발표
 -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 이혼할 권리 주장
- 약 100여 명의 여성·남성이 선언문에 서명, 여성참정권 운동 결의
- 1869년 여성참정권을 위한 전국협회 결성(캐디 스탠튼&수전 B. 앤서니)

1기 페미니즘

- 서프러제트는 당대 사람들에게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주지 않고 오로지 역설만을 던지는 여성’
 - 왜 자유·평등·박애라는 혁명의 가치가 여성 앞에서 멈춰 서는가?
 - 왜 여성은 투표권을 가질 수 없는가?
 - 왜 인간의 기준은 남성인가?
 - 여성은 남성과 무엇이 다른가?
 - 그 차이는 변할 수 없는가?
- 페미니즘이라는 사회운동을 출현하게 한 것은 바로 이 모순, 보편적 인권 담론과 근대 자유민주주의 정치철학·제도가 가지는 모순이다
- “페미니즘은 위대한 역설이다. 역설은 페미니즘 그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 (역사학자 조앤 스콧)

모순을 덮어라! ① '성차' 만들기

- 남녀의 차이가 정치적으로 중요해지자 성차의 증거를 찾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행해졌다
- 당대까지는 남녀 신체의 동일성을 강조(one sex model)
 - 토마스 라커, 『섹스의 역사』 : 'one sex model'이 'two sexes model'로 변화한 서구의 역사를 분석
 - 18세기 중엽 이후 오늘날 통용되는 섹스 개념, 즉 두 개의 반대되는 성이라는 개념이 자리잡기 시작
- 신분질서가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집단 간 차이를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병행됨. 과학의 권위를 빌려 남녀 차이와 불평등을 정당화
 - 이 때의 차이는 단순한 다름이 아니라 우월함과 열등함의 근거

모순을 덮어라! ②공·사 영역 분리

- 인간의 활동영역을 인위적으로 공과 사로 나누어, 성별에 따라 분할
- 이는 '출가외인' 이데올로기와 닮았다
 - 효를 강조하는 유교문화에서, 결혼한 여성이 겪게 되는 '모순'을 덮고자 고안
- 캐럴 페이트만,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 서구 근대사회는 여성을 배제한 남성들만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
 - 사회계약론이 가정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란 '남성 성인'을 의미
 - "시민사회는 대립하는 두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 두 영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오직 공적 영역에만 관심이 주어진다. 두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 또는 어떻게 두 영역이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 여성들은 시민사회에 있고 동시에 시민사회에 있지 않은 한 영역으로 통합되었다. ... 원초적 계약은 근대적 형태의 가부장적 시민사회를 만들어낸다."

성차에 기반한

공·사 영역의 분리

여성의 정치 배제

성역할과 성별 노동분업이라는 새로운 제도

산업화

남성성

가정화

여성성

근대과학은 성별 분업과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정의를
본질화·자연화하는데 기여

페미니스트들이 싸워 온 주요 안건

-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며, 재산을 소유할 권리
- 정치인을 뽑는 선거에 투표할 권리
- 신체 온전성을 유지할 권리
 - 페미니즘의 역사에서 반성폭력 운동, 피임 및 임신중단, 출산의 자율권 주장으로 나타남

2기 페미니즘

-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운동
- 급진적 페미니스트 운동
-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운동

자유주의 페미니즘

- 1기 페미니즘의 고전적 관점을 계승
- 여성 억압의 원인 : 여성의 공적 세계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제도와 법
- 해결 방안 : 제도와 법을 통한 평등권 획득
- 여성의 사회 참여에 초점
- 1963년 베틀 프리단의 『여성의 신비』가 새로운 혁명의 불씨로 작용
 -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전업주부에 대한 이상적 기대를 거부하자고 촉구
 - 여자도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져라
 - 전미여성협회 창립(1966) 및 초대 회장 역임



노먼 로크웰 <리벳공 로시>(1943)



하워드 밀러 <We Can Do IT>(1942)

급진주의 페미니즘

- 1960년대 반전운동 및 민권운동 등 소위 진보운동 내 존재하는 가부장제와 남성 중심주의에 환멸을 느낀 여성들이 주축
- 여성 억압의 원인 : 가부장제(핵심은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지배)
- 해결 방안 : 여성 중심주의에 근거한 성적 권리의 확보
- 여성의 사적인 경험들(성, 사랑, 결혼제도, 가족, 가사, 육아 등)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어 분석하고 이론화
-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
- 성차별이 최초의, 가장 보편적인, 가장 뿌리깊은 인간 억압의 형태라고 봄 - *성을 계급으로 인식*
- 일부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문화 페미니즘으로 전향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운동

- 여성 억압의 원인 :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 근대사회의 고유한 억압형태를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라고 부름
- 여성의 일에 초점
 - 가족제도는 자본주의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 왜 여성의 가사노동은 '진정한' 일이 아닌 것으로 경시되는가
 - 왜 여성들에게는 보상이 적은 일이 맡겨지는가
- '가사노동' 개념의 발견- 사람들의 인식에 발상의 전환 가져옴
 - 1973년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타 & 셀마 제임스 「여성과 공동체의 전복」

1기 페미니즘과 2기 페미니즘 비교

1기 페미니즘

- 근대 형성기에 성립
- 근대의 완성을 추구
- “여자이기 전에 인간이고 싶다”
- 남성과의 동일시 주장
- 제도 및 법률 개선을 추구
- 기존 사회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목표

2기 페미니즘

- 근대 해체기에 성립
- 근대 비판에서 출발
- ‘여자’가 ‘여자’인 채로 해방되고 싶다
- 남성중심주의를 공격
- 규범 및 가치 개선을 추구
- 기존 사회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남자와 똑같아지는 것(지배적·권력적)’을 거부
- 룰 자체를 바꾸자! ⇨ 3기 페미니즘

남녀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성차를 없애자 : 예)유니섹스
 - 한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성을 통전적으로 발현하는 것을 지향
- 제대로 된 성차를 발현시키자 : 긍정의 정체성 & 차이의 정체성
 - 여성의 열등성은 가부장제적 편견과 차별적 가치관에 의해 강요된 것
 - 남성과의 차이를 부각시킴으로써 여성의 정체성 구성
- 성차는 사회적 구성물, 다성적 재구성을 하자 : 예)수행적 정체성
- 혼종성으로 만들자 - 예)'사이보그 선언문'
 - 자연·인간·기계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구별 자체를 없애버리자.

세 가지 성평등 관점

성평등 비전	동일성의 획득 (같은의 정치학)	차이의 인정 (차이의 정치학)	다양성의 보장 (전환의 정치학)
	전략	동등성 추구	여성의 특수성 고려
정책 접근	균등 처우	특별 처우(적극적 조치)	성 주류화
정책 수단	법·제도적 차별 제거	여성 특화 제도와 정책	성인지 정책
한계	남성 중심의 동일화	갈등 심화 및 여성의 주변화	기술관료적 절차와 도구로 축소되는 경향
	※ 같음과 다름의 딜레마		

자료: 마경희, 「여성주의, 국가, 성평등」, (사)한국여성연구소 엮음, 『젠더와 사회』 재구성

3기 페미니즘

- 여성 내부의 차이에 주목
- 1990년대 이후, 페미니즘은 인종 및 섹슈얼리티 등의 차이를 아우르는 장치
- 흑인 페미니즘 ·우머니즘
- 에코페미니즘
-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 퀴어페미니즘

흑인 페미니즘

- 백인 엘리트 중산층 여성에 의해 주도되는 2기 페미니즘 운동을 비판하며 '우머니스트'라는 개념 제안
- 젠더와 다른 사회적 범주들과의 상호교차성 사유
- '이름없는 문제'라는 프리단의 말을 비판 - 대학교육을 받고도 성차별적 상황 때문에 가정에 붙잡혀 있는 백인 여성들의 경험일 뿐.
 - 백인 여성의 경험을 모든 여성의 경험으로 일반화, 보편화하는 오류
 - 백인 여성 시각에 반영된 인종적, 계급적 편견 폭로
- 특권 계급의 여성들은 같은 계급의 남성들과의 사회적 평등을 기대. 자본주의, 계급차별, 인종차별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칭함.
- 기존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관심사는 기존 질서에 쉽게 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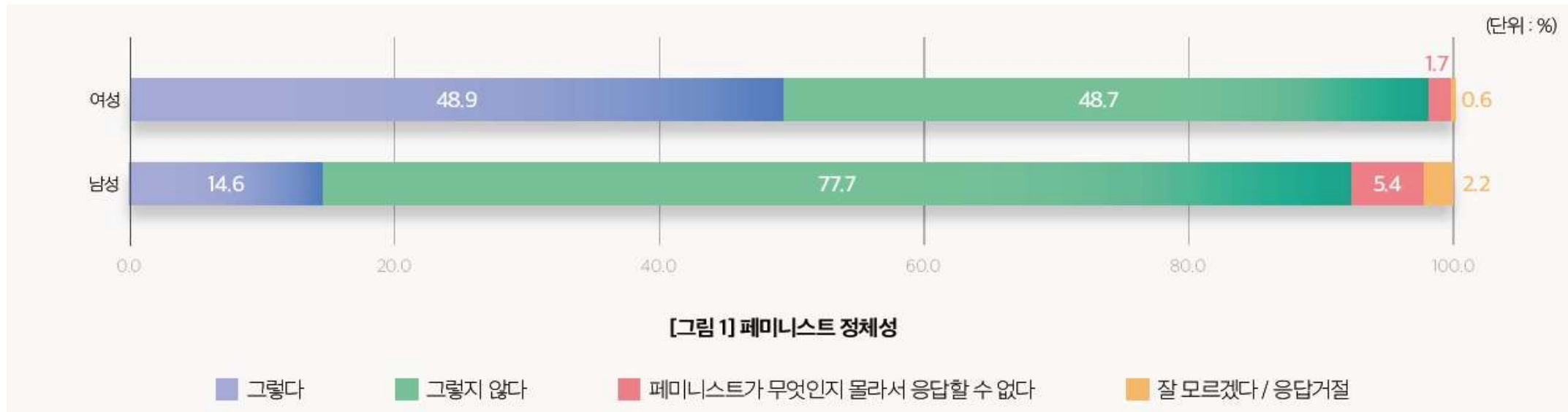
에코 페미니즘

- “우리는 남녀 모두 자연의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남자들은 특별히 그 사실을 배워서 깨우쳐야 한다.” (마리아 미즈)
 - 남성은 자기 자신과 다른 생명에게 무신경함으로써 생명이 지속하는 환경 그 자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자연에 대한 폭력이야말로 ‘성장 과 개발 신화’가 초래한 것
- 공식 경제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남성적 경제학’을 비판
 - 눈에 보이는 공식 경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 수면 아래 가사노동, 그림자노동, 비공식 영역의 노동, 식민지 노동 등이 경제의 코어를 지탱하고 있다
- ‘여성의 시각’은 ‘여성문제’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남성의 시각’에 기반한 근대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패러다임이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가'

- 전국의 만 19세~29세 남녀 1천 여 명을 상대로 설문
 - 여성은 48.9% 동의
 - 남성은 14.6% 동의
 - 20대 여성에게 페미니스트 정체성 대중화 시사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년 7월 조사, <KWDI Brief> 2018.11.15)



'신자유주의적 페미니즘'

- 현재 10대~30대 여성들은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의 주체들
 - 성공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경쟁에서 성공하라고 장려 받으며 자란 세대
 - 남성에게 빼앗긴 파이를 되찾자고 주장
- 신자유주의적 페미니즘 = '1%를 위한 페미니즘'
 - 기업 CEO나 유명인을 중심으로 퍼져가는 페미니즘 리더 담론(파워 페미니즘)
 - 정의 대신 행복을, 체제 변화 대신 개인의 자기계발을 강조하여 인적 자본을 최대화하려는 신자유주의 통치술
-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그것이 '원래 페미니즘'이라 생각

자기계발 방편이 된 '양성평등교육'

성별 고정관념과 성역할 분업은 왜 문제인가?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남자다움·여자다움에서 벗어나 나다움을 찾으라.”

- 차별적 성역할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대신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환시킴
- 양성평등교육이 추구하는 목표가 자기역량 강화로 변형됨
-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능력을 강조하지만, 그 삶이 어떠해야 하며 어떨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음
- 양성평등교육이 이벤트성 활동이나 단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탓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나의 성평등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3기 페미니즘의 과제

- 후기 근대사회의 특성
 - 개인화 추구(여자·남자가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 살 수 있는 여건 제공)
 - 시스템 자체가 개인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유리한 사회
 - 혼자 살고, 외로우면 ‘합류적 사랑’을 하고, 유리한 직업기회를 따라 흩어지는 삶을 ‘당연시’하는 사회
 - ‘굴종의 여성상’(전통 및 가정의 굴레에 갇힌) 및 ‘전투적 여성상’(남성과의 대립을 일삼는)에서 벗어난 ‘제3의 여성’
- 후기 근대사회의 폐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3기 페미니즘의 방향

- 페미니즘 이론은 여성의 시각에서 사회 전체를 재검토하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사익을 추구하고
공격적이고 경쟁적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공감능력이 뛰어나고
협조적이다

상호의존적이다

Q & A

